

유란시아서

<< [제 93 편](#) | [부분](#) | [내용](#) | [제 95 편](#) >>

제 94 편

멜기세덱의 가르침이 동양에 미친 영향

94:0.1 (1027.1)

살렘 종교의 초기 선생들은 **아프리카**와 **유라시아**의 가장 멀리 떨어진 부족들에 이르기까지 침투했고, 사람이 우주의 **하나님** 한 분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신의 은총을 얻는 데 치르는 유일한 값이라는 **마키벤타**의 복음을 늘 전파하였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은 **살렘**과 다른 여러 중심에서 떠나간 모든 초기 선전의 본보기였다. 동반구 전체에 **멜기세덱**의 가르침을 가지고 간 이 고귀한 남녀들보다 더 열심이고 적극적인 선교사들이 어떤 종교에도 결코 **유란시아**에 있는 적이 없다. 이 선교사들은 여러 민족과 종족으로부터 모집되었고, 그들은 대체로 개종한 원주민의 중개를 통해서 가르침을 퍼뜨렸다. 그들은 세계의 여러 구석에 훈련 중심을 세웠고, 거기서 원주민에게 **살렘** 종교를 가르치고, 다음에 이 생도들을 자기 민족 가운데서 선생으로서 활동하라고 임명했다.

1. 살렘의 가르침이 베다 시대 인도에 미친 영향

94:1.1 (1027.2) **멜기세덱**의 시절에, 인도는 국제적인 나라였고, 최근에 북쪽과 서쪽에서 침공하는 **아리아-안드** 족속의 정치적·종교적 지배를 받게 되었다. 이때 반도에서 오직 북쪽과 서쪽 부분에 **아리아인**이 널리 스며들었다. **베다** 시대에 새로 온 이 이민들은 그들의 많은 부족 신을 가져왔다. 그들의 종교적 예배 형태는, 아직도 아버지가 사제, 어머니가 여사제로서 활동하고, 가족의 화로(火爐)가 제단으로서 이용되었으므로, 이전에 있었던 선조, **안드** 족속의 예식 풍습을 가까이 따랐다.

94:1.2 (1027.3) **베다** 숭배는 그때 선생이자 사제인 **브라만** 카스트의 지휘 하에 성장하고 변형하는 과정을 밟고 있었고, 이 카스트는 확대되는 예배 의식에 차츰 고삐를 쥐고 있었다. **살렘** 선교사들이 인도 북부에 침투했을 때, 옛 **아리아인**의 신 33명의 혼합이 한창 진행되고 있었다.

94:1.3 (1027.4) 이 **아리아인**의 다신교는 이전의 일신교의 퇴화를 가리키며, 이것은 그들이 부족 단위로 갈라지고 각 부족이 자체가 모시는 신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생겨났다. **안드** 족속이 있던 **메소포타미아**에서 최초의 일신교와 **삼위일체** 사상이 이렇게 퇴화한 것은 **그리스도** 이전 둘째 천년의 처음 몇 세기에 다시 합성하는 과정에 있었다. 여러 신이 하늘의 주 **다우스 피타**^[104], 번덕스러운 공기(空氣)의 주 **인드라**, 그리고 머리가 셋 달린, 불의 신이요, 땅의 주이며 더 일찍 있던 **삼위일체** 개념의 남은 흔적을 상징하는 **아그니**, 이 삼자의 통일된 지도 하에서 만신전 속으로 조직되었다.

94:1.4 (1027.5) 분명한 최고신교의^[105] 발전이 진화된 일신교를 위하여 길을 놓고 있었다. 가장 오래 된 신 **아그니**는 흔히 만신전 전체에서 아버지인 우두머리로서 높임을 받았다. 때때로 **프라자파티**라 부르고 때로는 **브라마**라고 이름 지은, 아버지 신의 원리는 **브라만** 사제들이 나중에 **살렘** 선생들과 벌인 신학 투쟁에서 사라져 버렸다. **브라만**은 **베다**의 만신전 전체를 활성화하는 에너지이자 신이 되는 원리라고 생각되었다.

94:1.5 (1028.1) **살렘** 선교사들은 **멜기세덱**의 유일한 **하나님**, 하늘의 **최고자**를 전파했다. 이 묘사는 **아버지 브라마**가 모든 신의 근원이라는 새로 태어나는 개념과 전적으로 어긋나지는 않았지만, **살렘**의 교리는 의식이 없었고, 따라서 **브라만** 사제의 교리 · 전통 · 가르침과 정면으로 충돌했다. 의식의 준수와 희생물 바치는 예식은 별도로 하고, **브라만** 사제들은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총을 얻는다는 **살렘**의 가르침을 결코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았다.

94:1.6 (1028.2) **하나님**을 의지할 것과 믿음을 통한 구원을 부르짖는 **멜기세덱** 복음을 물리친 것은 인도(印度)에게 생사를 좌우하는 전환점을 표시했다. **살렘** 선교사들은 **베다**의 모든 옛 신을 믿는 신앙을 버리는 데 크게 기여했지만, 지도자, 곧 **베다교**의 사제들은 유일한 **하나님**과 하나의 단순한 신앙을 부르짖는 **멜기세덱**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

94:1.7 (1028.3) **브라만**들은 **살렘** 선생들에 대항하려는 노력으로 당대의 신성한 기록들을 추려 냈고, 이 모음은 나중에 편집되어 현대까지 **릭 베다**로서 내려왔는데, 이것은 가장 오래 된 신성한 책들 중에 하나이다. **브라만**들이 자기네 예배 의식과 희생을 구체화하고 모양을 갖추고, 이것들을 그 시절의 사람들에게 부과하려고 애쓰기에 따라서,

둘째 · 셋째 · 넷째 **베다**가 뒤따랐다. 가장 좋은 면을 보았을 때, 이 기록들은 개념의 아름다움과 진실을 헤아리는 면에서 비슷한 성질을 가진 어느 다른 수집에도 필적한다. 그러나 이 우수한 종교가 인도 남부에서 수천 가지 미신과 제사와 의식에 오염되자, 그것은 필사 인간이 일찍이 개발한 신학 중에서 가장 얼룩덜룩한 체계로 점차 모습을 바꾸었다. **베다**를 한번 검토하면 사람이 상상한 것 가운데 신에 관한 가장 높은 개념과 가장 비천한 개념을 얼마큼씩 드러낼 것이다.

2. 브라만교

94:2.1 (1028.4) **살렘** 선교사들이 남쪽으로 **드라비다의 데칸**으로 파고 들어감에 따라서, 그들은 심해지는 카스트 제도에 부딪쳤는데, 이것은 높아지는 2차 **산직** 민족들의 물결에 직면하여 종족 신분의 상실을 막으려는 **아리아인**의 계획이었다. **브라만** 사제 카스트가 이 체계의 바로 그 본질이었기 때문에, 이 사회 질서는 **살렘** 선생들의 진전을 대단히 지연시켰다. 이 카스트 제도는 **아리아** 민족을 구하지 못했지만, **브라만**을 영속시키는 데 성공했고, 그들은 다음에 인도에서 오늘날까지 종교의 주도권을 유지했다.

94:2.2 (1028.5) 이제, 더 높은 진실을 거부함으로 **베다** 신앙이 악화되자, **아리아인**의 종파는 **데칸**으로부터 점점 더 침입을 당했다. 종족이 멸망하고 종교가 죽어가는 대세를 막으려는 절망스러운 노력으로, **브라만** 카스트는 자신들을 모든 다른 것 위에 높이려고 애썼다. 그들은 신에게 희생물 바치는 것은 그 자체로서 대단히 효력이 있고, 그 효능이 온통 강력하다고 가르쳤다. 우주의 두 가지 기본 되는 신성한 원칙 중의 하나는 신 **브라만**이고, 다른 하나는 **브라만** 사제라고

선포했다. 다른 어떤 **유란시아** 민족들 사이에서도 사제들이 자기네 신들 위에 자기를 높이고, 신들이 받을 영예를 자신이 가로채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들이 이 주제넘은 주장으로 너무 터무니없이 극단적으로 우겼기 때문에, 둘러싼 덜 진보된 여러 문명으로부터 쏟아져 들어온 천한 종파들 앞에서, 그 아슬아슬한 체계가 통째로 무너졌다. 광대한 **베다** 사제직 자체가 버둥거렸고, 자신들의 이기적이고 지혜롭지 못한 주제넘은 짓이 온 인도에 가져온, 무기력과 비관주의의 검은 물결 밑으로 사라졌다.

94:2.3 (1029.1) 자아에 지나치게 집중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잡초로서 연달아 육신화되는 끝없는 싸움에서, 자아가 비진화 방법으로 영속한다는 두려움을 확실히 낳았다. 태어나는 일신교가 될 뻔한 것에 부착될 수 있었던 모든 오염시키는 신앙 중에서, 아무것도 **드라비다의 데칸**에서 온 이 윤회(輪廻) 신앙 — 혼이 다시 육신화한다는 교리 — 보다 더 어리석어 보이는 것은 없었다. 지긋지긋하고 단조롭게 거듭 윤회함을 믿는 이 관념은 오래 간직했던 희망, 일찍부터 **베다** 신앙의 일부로서, 죽고 나서 구원받고 영적 승진을 발견하는 희망을 분투하는 필사자로부터 빼앗았다.

94:2.4 (1029.2) 철학적으로 사람을 쇠약하게 하는 이 가르침 뒤에, **브라만**, 곧 온 창조의 대혼(大魂)과 절대로 연합하여 우주의 휴식과 평화 속에 잠김으로, 자아를 영원히 벗어난다는 교리가 발명되었다. 필사자의 욕망과 인간의 포부는 실질적으로 빼앗기고 거의 파괴되었다. 2천 년이 넘도록 인도의 상급 지성은 모든 욕망에서 벗어나려고 애썼고, 그래서 영적 절망의 사슬 속에 많은 **힌두** 민족의 혼을 실질적으로 쇠고랑으로 채운 후일의 종파들과 가르침이 들어오도록 문이 활짝 열렸다. 모든 문명 가운데서, **베다** 어족 **아리아인**은 **살렘**의 복음을 물리친 것 때문에 가장 끔찍한 값을 치렀다.

94:2.5 (1029.3) 카스트만 가지고 **아리아인**의 종교적 문화 체계를 영속할 수 없었고, **데칸**의 열등한 종교들이 북쪽에 침투하자, 절망과 낙심의 시대가 열렸다. 이 어두운 시절에 아무 생명도 죽이지 않는 종파가 일어났고, 그 뒤로 늘 지속하였다. 새로운 종파들 중에서 많은 것이 버젓이 무신론이었고, 얻을 수 있는 그런 구원은 오직 사람이 도움 받지 않고 노력하여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행한 철학의 많은 부분에 두루, **멜기세덱**의 가르침, 아니 **아담**의 가르침의 잔재가 왜곡되어 남은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

94:2.6 (1029.4) 이때는 **힌두** 신앙의 후기 성서, 곧 **브라마나**와 **우파니샤드**가 수집된 시절이었다. 몸소 믿음으로 유일한 **하나님**을 체험한다는 개인적 종교의 가르침을 물리치고, **데칸**에서 온, 비천하고 사람을 약화시키는 종파들과 교리의 물결에, 그리고 신을 인격화하는 생각과 환생(還生) 사상에 오염되었기 때문에 **브라만** 사제들은 이러한 오염시키는 관념에 대하여 맹렬한 반응을 체험했다. 참된 실체를 추구하고 찾아내려는 분명한 노력이 있었다. **브라만**들은 인도인의 신 개념에서 사람 닮은 모습을 없애는 데 착수했지만,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개념에서 성격을 없애는 끔찍한 잘못에 빠졌으며, **파라다이스 아버지**라는 드높은 영적 이상이 아니라, 만물을 둘러싸는 **절대자**라는 아득한 형이상학적 관념을 가지고 솟아났다.

94:2.7 (1029.5) 자체를 보존하려는 노력으로 **브라만**들은 **멜기세덱**의 유일한 **하나님**을 물리쳤고, 이제 그들은 **브라만**, 분명치 않고 미혹하는 철학적 자아, 비성격이고 무력한 그것을 가정(假定)하게 되었고, 이것은 그 불행한 날부터 20세기까지 인도의 영적 생활을 힘없고 기운 빠지게 만들었다.

94:2.8 (1029.6) 불교가 인도에서 일어난 것은 **우파니샤드**를 기록하던 시절이었다. 그러나 1천 년 동안 성공했는데도, 불교는 후일의 **힌두교**와 경쟁할 수 없었다. 도덕 수준이 더 높았는데도, 초기에 불교의 **하나님** 묘사는 **힌두교**보다도 분명하지 않았고, **힌두교**는 작은 신, 개인을 상대하는 신들을 마련해 주었다. **알라**가 우주에서 최고의 **하나님**이라는 뚜렷한 개념을 가진, 호전적 **이슬람교**의 돌진 앞에서 불교는 인도 북부에서 마침내 굴복했다.

3. 브라만의 철학

94:3.1 (1030.1) **브라만교**의 최고 단계를 도저히 종교라 할 수 없지만, 그것은 참으로 철학과 형이상학 분야 속으로 필사 지성이 도달한 가장 고귀한 노력의 하나였다. 최종의 실체를 찾아내려고 길을 떠났으니까, 종교의 기본적 두 가지 개념을 빼고, 인도의 지성은 멈추지 않고 신학의 거의 모든 단계에 관하여 숙고해 보았다. 이 두 개념은 온 우주의 생물을 지으신 **우주의 아버지**가 존재하는 것, 그리고 영원한 **아버지**가 완전한 것 같이 그들에게 완전하라고 명하신 그 **아버지**에게 도달하려고 애쓰는 동안에 바로 이 사람들이 우주에서 승천 체험을 겪는 사실이다.

94:3.2 (1030.2) **브라만** 개념을 보면 그 시절의 지성인은 만물에 침투하는 어떤 **절대자** 관념을 참으로 붙잡았는데, 이는 이 가정이 한꺼번에 창조 에너지이자 우주의 반응이라고 간주되었기 때문이다. **브라만**은 도무지 정의(定義)를 내릴 수 없는 것이라 생각되었고, 오직 모든 유한한 성질을 연달아 부정함으로 이를 이해할 수 있었다. 분명히 이것은, 절대 존재, 아니 무한한 어떤 존재를 믿는 관념이었지만, 이

개념에는 대체로 성격 특성이 빠져 있고, 따라서 개별 신자가 이를 체험할 수 없었다.

94:3.3 (1030.3) **브라만 나라야나는 절대자, 무한한 스스로 있는 그것, 곧** 잠재 우주의 원초적 창조 잠재력이요, 모든 영원을 통해서 정적(靜的)으로 존재하고 잠재하는 우주의 자아로 생각되었다. 당시의 철학자들이 신 개념에서 그 다음 걸음을 내디딜 수 있었다면, **브라만이** 연합하고 창조하는 성질이 있고, 지음받고 진화하는 존재들이 가까이할 수 있는 하나의 성격자라고 생각할 수 있었다면, 다음에 그러한 가르침은 **유란시아**에서 신에 관한 가장 진보된 초상화가 되었을 터인데, 이는 그 가르침이 총체적 신(神)의 기능에서 처음 다섯 수준을 포함하고, 아마도 나머지 둘을 상상했을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94:3.4 (1030.4) 어떤 단계에서 **하나의 우주 대혼(大魂)**이 모든 생물 존재를 합친 것의 총체라는 개념은 인도의 철학자들을 **최상 존재**의 진실에 무척 가까이 가도록 이끌었다. 그러나 이러한 진실은 그들에게 아무 소용이 없었는데, 그들이 **브라만 나라야나라**는 이론적 일신교 목표에 이르는 데 타당하거나 합리적인 어떤 개인적 접근법도 개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94:3.5 (1030.5) 인과 관계의 연속을 말하는 카르마 원칙은 다시, **최상위의** 신 계심 안에 시공의 모든 행위의 영향이 통합된다는 진실과 아주 가까웠다. 그러나 이 가정은 결코 이와 나란히 개별 신자가 개인적으로 신에 도달하는 길을 마련하지 않았고, **우주의 대혼**이 모든 인격을 궁극에 삼킨다고만 하였다.

94:3.6 (1030.6) **브라만교**의 철학은 또한 **생각 조절자**의 깃드심을 거의 깨달을 뻔했지만, 진실을 오해함으로 타락되기만 했다. 혼이 **브라만**의 깃드심이라는 가르침은, 이렇게 **우주의 하나**가 깃드는 것을 제쳐 놓고,

따로 인간의 개성이 전혀 없다는 관념에 완전히 오염되지 않았더라면, 진보된 종교를 위하여 길을 닦았을 것이다.

94:3.7 (1030.7) 자아의 혼이 **대혼**과 합쳐진다는 교리에서, 인도의 신학자들은 인간다운 무엇, 새롭고 독특한 무엇, 사람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하나가 됨에서 태어나는 무엇이 살아남는다는 것에 생각이 미치지 못했다. 혼이 **브라만**으로 돌아간다는 가르침은 **조절자**가 **우주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간다는 진리와 거의 같은 방향이다. 그러나 **조절자**와 달리, 또한 살아남는 무엇이 있으니, 이것은 필사 인격자의 상물질 사본(寫本)이다. 이 근본 개념이 **브라만** 철학에 치명적으로 빠져 있다.

94:3.8 (1031.1) **브라만** 철학은 우주의 많은 사실에 접근했고, 수많은 우주 진실에 가까이 갔다. 그러나 절대 · 초월 · 유한 수준과 같이 몇 가지 수준의 실체를 구별하지 못하는 잘못을 너무 자주 저질렀다. 절대 수준에서 유한하고 환상인가 싶은 것이 유한 수준에서 절대로 실재할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다. 그리고 그 철학은 또한 **우주의 아버지**의 기본 성격을 조금도 알아보지 못했는데, 진화 인간의 제한된 **하나님** 체험을 비롯하여 **영원한 아들이 파라다이스 아버지**를 한없이 체험하는 경지에 이르기까지, 어떤 수준에서도 **우주의 아버지**를 몸소 접촉하는 것이 가능하다.

4. 힌두교

94:4.1 (1031.2) 인도에서 몇 세기가 지나자, 민중은 **멜기세덱** 선교사들의 가르침으로 인하여 수정되고 나중에 **브라만** 사제들이 구체화한, **베다**의 옛 의식(儀式)으로 어느 정도 돌아갔다. 세계 종교들 가운데

가장 오래 되고 가장 국제적인 이 종교는 불교 · 자이나교, 그리고 나중에 나타나는 모하메드교 · 기독교의 영향에 반응하여, 더 변화를 겪었다. 그러나 **예수**의 가르침이 도착할 때가 되자 그 가르침은 “백인의 종교”가 될 정도로 이미 너무나 서양화되었고, 따라서 **힌두**의 지성인에게 이상하고 낯설었다.

94:4.2 (1031.3) **힌두** 신학은 현재 네 가지 내려가는 수준의 신과 신성을 그린다:

94:4.3 (1031.4) 1. 브라만, 절대자, 무한한 하나, 스스로 존재하는 그것.

94:4.4 (1031.5) 2. 삼신일체(三神一體), 힌두교에서 제일 높은 삼자일체. 이 결합에서, 첫째 구성원 **브라마**는 **브라만** — 무한 — 에서 스스로 창조되었다고 생각된다. 범신적인 **무한한 하나**와 가까운 신분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면, **브라마**는 **우주의 아버지** 개념의 기초를 이룰 수도 있다. **브라마**는 또한 운명과 동일시된다.

94:4.5 (1031.6) 둘째와 셋째 구성원, **시바**와 **비슈누** 숭배는 그리스도 이후 첫째 천년 동안에 일어났다. 시바는 삶과 죽음의 주, 다산(多産)의 신이요, 파괴의 주였다. 비슈누는 정기적으로 사람 모습으로 육신화한다는 믿음 때문에 대단히 인기가 좋았다. 이 방법으로 **비슈누**는 인도인의 상상 속에서 실재하고 살아 있게 된다. 더러는 **시바**가, 더러는 **비슈누**가 만물 위에 최고라고 여겼다.

94:4.6 (1031.7) 3. 베다 및 베다 이후의 신들. **아그니** · **인드라** · **소마**와 같이, **아리아인**이 가졌던 고대의 여러 신은 삼신일체의 세 구성원에 2차적인 것으로서 지속하였다. 이에 더하여 수많은 신이 **베다** 시대

인도의 옛 시절 이후로 일어났고, 그들은 또한 **힌두인**의 만신전에 합병되었다.

94:4.7 (1031.8) 4. **반신**(半神): 후일의 종파에서 믿는 초인간 · 준신(準神) · 영웅, 악마 · 귀신 · 악령 · 요정(妖精) · 괴물 · 도깨비 · 성자(聖者) 들.

94:4.8 (1031.9) **힌두교**는 오랫동안 인도 국민에게 활력을 주지 못했지만, 동시에 보통, 관대한 종교였다. **힌두교**의 큰 장점은 그 종교가 **유란시아**에서 나타난 바 가장 잘 적응하고 형태가 없는 종교임이 입증되었다는 사실에 있다. **힌두교**는 거의 한없이 바뀔 능력이 있고, 지적 **브라만**의 높은 반(半) 일신교 같은 추측으로부터 천하고 억압 받는 계층의 무지한 신자들이 가진 터무니없는 주물 사상과 원시적 숭배 풍습에 이르기까지, 신축성 있게 조정할 정도로 특별히 범위가 넓다.

94:4.9 (1032.1) **힌두교**가 살아남은 것은 본질적으로 그 종교가 인도에서 기본 사회 조직의 필수 부분이기 때문이다. **힌두교**는 어지러워지거나 파괴될 수 있는 아무런 큰 성직자 계층이 없다. **힌두교**는 사람들의 생활 형태에 함께 얽혀 있다. **힌두교**가 변하는 조건에 대하여 적응하는 능력은 모든 다른 종파를 뛰어넘는다. 많은 다른 종교에 대하여 관대하게 받아들이는 태도를 나타내며, **고타마 부다**와 바로 **그리스도**조차도 **비슈누**가 육신화한 것이라 주장한다.

94:4.10 (1032.2) 오늘날 인도에서, **예수**의 복음 — **하나님이 아버지**이고 모든 사람이 아들이요, 따라서 형제인 것 — 을 묘사할 필요가 크며, 이 형제 정신은 사랑으로 베풀고 사회에 봉사할 때 개인적으로 이루어진다. 인도에는 철학의 틀이 존재하고, 신을 숭배하는 구조가 있다. 다만 필요한 것은 **미가엘**이 일생을 수여한 일을 백인의 종교로

만드는 성향이 있었던, 서양의 독단과 교리를 벗어 버린 복음, **사람의 아들이** 준 최초의 복음에 나타난 힘찬 사랑의 불꽃, 활력을 주는 불꽃이다.

5. 중국에서 있었던 진실을 위한 투쟁

94:5.1 (1032.3) **최고자 하나님**, 그리고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는다
교리를 퍼뜨리면서 **아시아**를 통과하는 동안, **살렘** 선교사들은 거쳐 간 여러 나라의 철학과 종교 사상을 많이 흡수했다. 그러나 **멜기세덱**과 그 후계자들이 임명한 선생들은 그들에게 맡긴 책임을 저버리지 않았다. 그들은 **유라시아** 대륙의 모든 민족에게 파고들었고, 그들이 중국에 도착한 것은 **그리스도** 이전 둘째 천년의 중엽이었다. **수이푸**(敘府)에서^[106] 1백 년이 넘도록 **살렘** 사람들은 그들의 본부를 유지하면서 거기서 중국인 선생들을 훈련시켰고, 이들은 황인종의 영토 전역에 두루 가르쳤다.

94:5.2 (1032.4) 가장 원시 형태의 도교(道敎)가 중국에서 일어난 것은 이 가르침의 직접 결과였는데, 도교는 오늘날 그 이름을 지닌 것과 크게 다른 종교였다. 초기, 곧 시초의 도교는 다음 요소의 복합이었다:

94:5.3 (1032.5) 1. **싱랑톤**의 남아 있는 가르침, 이것은 상제(上帝), 곧 **하늘님**의 개념으로 지속되었다. **싱랑톤**이 살던 시절에 중국인은 거의 일신교를 믿게 되었다. 그들은 **하나의 진실**을 숭배하는 데 마음을 쏟았고, 이것은 나중에 **하늘의 영**, 곧 우주의 통치자로 알려졌다. 그리고 황인종은 결코 이 초기의 신 개념을 완전히 잃지 않았다.

하지만 뒤이은 여러 세기에 많은 하위 신과 영이 그들의 종교 속으로 모르는 사이에 기어 들어왔다.

94:5.4 (1032.6) 2. 사람의 믿음에 반응하여 인류에게 은혜를 내리려 하는 최고 **창조자** 신을 믿는 **살렘** 종교. 그러나 **멜기세덱** 선교사들이 황인종의 땅을 침투했을 때가 되자, 그들이 최초로 전한 말씀은 **마키벤타** 시절에 **살렘**의 간단한 교리와 상당히 달라졌다는 것이 또한 너무나 참말이다.

94:5.5 (1032.7) 3. 모든 악을 피하려는 욕구와 함께, 인도의 철학자들이 가진 **브라만 절대자** 개념. **베다** 신앙을 가르치는 인도인 선생들은 동쪽으로 향한 **살렘** 종교의 전파에 아마도 가장 큰 외부 영향력을 미쳤고, 그들은 자기네 **브라만 — 절대자 —** 개념을 **살렘** 사람들의 구원 사상에 붙여 넣었다.

94:5.6 (1033.1) 이 복합 신앙은 종교 철학 사상에서 근원적 영향이 되어 황인과 갈색 종족들의 땅을 통해서 퍼졌다. 일본에서 이 원시 도교는 신도(神道)로 알려졌고, **팔레스타인**의 **살렘**으로부터 아득히 먼 이 나라에서, 민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인류가 잊지 않게 하려고 땅에서 **마키벤타 멜기세덱**이 육신화한 것에 대하여 배웠다.

94:5.7 (1033.2) 중국에서 이 관념들은 모두 늘 성장하는 조상 숭배 종파와 후일에 뒤범벅이 되고 섞여 버렸다. 그러나 **싱랑톤**의 시절 이후로 중국인은 사제들에게 무력한 노예가 된 적이 없다. 황인종은 미개한 속박의 처지에서 질서 있는 문명으로 처음 솟아나온 종족인데, 이는 그 종족이 비굴하게 신들을 두려워하던 처지에서 어느 정도 벗어났고, 다른 종족들이 무서워한 것처럼 죽은 사람의 귀신을 무서워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중국은 사제들로부터 초기에 해방된 지경을 넘어서

진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했다. 중국은 거의 똑같이 비참한 잘못, 조상 숭배에 빠졌다.

94:5.8 (1033.3) 그러나 **살렘** 사람들의 수고는 헛되지 않았다. 6세기에 중국의 위대한 철학자들은 이들의 복음의 기초 위에 자기들의 가르침을 확립하였다. 노자와 공자의 시절에 도덕적 분위기와 영적 감정은 그 이전 시대에 **살렘** 선교사들의 가르침으로부터 자라났다.

6. 노자와 공자

94:6.1 (1033.4) **미가엘**이 오시기 약 6백 년 전에, 육체를 떠난 지 오래 된 **멜기세덱**에게는 땅에서 그의 순수한 가르침이 더 오래 된 **유란시아** 신앙 속으로 널리 흡수됨으로 지나치게 위태로워지고 있는 듯하였다. 한동안 **미가엘**의 선구자였던 그의 사명이 실패할 위험이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리스도** 이전 6세기에, 영적 대리자들의 특별한 조정을 통해서, 행성 감독자들조차도 이를 다 이해하지 못하는데, **유란시아**에 다양한 종교적 진실이 아주 특별히 발표되었다. 몇몇 인간 선생들의 주선을 통해서, **살렘**의 복음은 다시 진술되고 다시 활력을 찾았고, 그때 발표된 대로, 많은 것이 이 글을 쓸 때까지 지속하였다.

94:6.2 (1033.5) 영적 진보가 있었던 이 독특한 세기의 특징은 문명화된 세계 전역에 걸쳐서, 종교 · 도덕 · 철학 면에서 위대한 선생이 나타난 것이다. 중국에서 탁월한 두 선생은 노자(老子)와 공자(孔子)였다.

94:6.3 (1033.6) 도(道)가 모든 창조의 **유일한 첫째 근원**이라고 선포했을 때 노자는 **살렘** 전통의 개념에 기초를 두었다. 노자는 큰 영적 선견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는 “사람의 영원한 운명은 도, 최상의 **하나님**, 우주의 임금과 영원히 하나되는 것이라”고 가르쳤다. 그는 궁극의 원인을 가장 날카롭게 이해하였는데, 이는 “하나는 절대 도에서 생겨나고, 하나에서 우주의 이원(二元)이 나타나며, 그러한 이원에서 삼위가 솟아나오고, 삼위는 모든 실체의 최초 근원이라”^[107]하였기 때문이다. “모든 실체는 우주에 있는 잠재성과 실재물 사이에 늘 균형되어 있고, 신의 영이 이것들을 영원히 조화시킨다.”

94:6.4 (1033.7) 노자는 또한 악을 선으로 갚는 교리를 가장 일찍 발표한 사람 중에 하나였다: “선은 선을 낳지만, 참으로 선한 자에게는 악도 또한 선을 낳는다.”

94:6.5 (1033.8) 그는 사람은 **창조자**에게 돌아간다고 가르쳤고, 생명을 우주의 잠재성에서 인격이 태어나는 것으로 그렸으며, 한편 죽음은 사람의 이 인격이 집으로 돌아가는 것과 같았다. 그가 가진 참된 믿음의 개념은 특별했고, 그도 또한 이것을 “어린이의 태도”와 견주었다.

94:6.6 (1034.1) 그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뚜렷이 이해했으니, 이렇게 말했기 때문이다: “절대 신은 애쓰지 않아도 늘 이긴다. 그는 인류에게 강요하지 않지만, 언제나 그들의 참된 소망에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 **하나님**의 뜻은 영원히 참고, 그 뜻의 표현은 영원히 불가피하다.” 참 종교가에 대해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는 진실을 표현하면서 말했다. “착한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진실을 주고 있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이 재산을 동료들에게 주려고 애쓰는데, 이는 그것이 진실의 실현이기 때문이다. **절대자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이익이 되고 결코 파괴하지 않는다. 참 신자의 목적은 언제나 행동하는 것이나 결코 강요하는 것이 아니다.”

94:6.7 (1034.2) 노자가 무저항을 가르치고, 행위와 강요를 구별한 것은 나중에 “아무것도 보거나 행하거나 생각하지 않는” 신앙으로 곡해되었다. 그러나 노자는 결코 그러한 잘못을 가르치지 않았다. 하지만 그가 무저항을 내세운 것은 중국 민족의 평화로운 성향이 더욱 발달하는 한 요인이 되었다.

94:6.8 (1034.3) 그러나 20세기 **유란시아**에서 유행하는 도교는 그 옛 철학자의 드높은 감정 및 우주의 개념과 공통되는 것이 거의 없다. 그는 파악한 대로 진실을 가르쳤으니, 이것이다: **절대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세상을 다시 만들 그 신성한 에너지의 근원이요, 그 에너지로 사람은, 도(道), 곧 우주의 영원한 신, 절대 **창조자**와 영적으로 하나되는 경지까지 올라간다.

94:6.9 (1034.4) 공부자(孔夫子)는 6세기에 중국에서 노자와 같은 시대에 살고 나이가 더 어린 사람이었다. 공자의 신조는 황인종의 오랜 역사에서 상급의 도덕적 전통에 기초를 두었고, 또한 **살렘** 선교사들의 남아 있는 전통에 얼마큼 영향을 받았다. 그의 주요한 업적은 옛 철학자들의 지혜로운 말씀을 모은 데 있다. 일생 동안 그는 사람들이 거절한 선생이었지만, 그의 글과 가르침은 그 뒤로, 중국과 일본에^[108] 큰 영향을 미쳤다. 공자는 마술이 있던 자리에 도덕을 올려놓았으므로 샤먼들에게 본보기를 보였다. 그러나 그는 너무 손을 댔다. 그는 질서를 새로운 주물로 만들고 조상의 행위를 공경하도록 만들었으며, 이 글을 쓸 때 중국인은 아직도 조상의 행위를 받들어 모신다.

94:6.10 (1034.5) 유교(儒敎)가 설파하는 도덕은, 땅의 길은 하늘의 길이 일그러져 비친 그림자요, 이 세상 문명의 참된 모범은 하늘의 영원한 질서가 거울에 비친 것이라는 이론에 바탕을 둔다. 유교에서 잠재하는

하나님 개념은 천도(天道), 곧 우주의 원본을 강조한 것에 비하여 거의 완전히 경시되었다.

94:6.11 (1034.6) 동양에 있는 소수를 제외하고 모두가 노자의 가르침을 잃어버렸지만, 공자의 글은 그 뒤로 늘, **유란시아인**의 거의 3분의 1의 문화에 도덕적 구조의 기초가 되었다. 이 공자의 교훈은 지난날의 최선을 지속하기는 해도, 그렇게 존중받은 업적을 낳은 중국인의 바로 그 탐구 정신에 얼마큼 해로웠다. 진시황 황실의 노력과 묵자(墨者)의 가르침이 이 교리의 영향에 맞서 싸웠으나 헛일이었다. 묵자는 윤리적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를 둔 형제 정신을 부르짖었다. 그는 새로운 진실을 찾는 옛 탐구 정신에 다시 불을 붙이려고 했지만, 그의 가르침은 공자의 제자들의 억센 반대에 부딪쳐 실패했다.

94:6.12 (1034.7) 중국에서 영적으로 어둡던 시대에, 다른 여러 영적 선생과 도덕 스승들처럼, 결국 추종자들이 공자와 노자 모두를 신격화하였고, 이 시대는 도교 신앙이 쇠퇴하고 왜곡되던 때와 인도에서 불교 선교사들이 오던 사이에 끼었다. 영적으로 퇴폐한 이 여러 세기 동안, 황인종의 종교는 불쌍한 신학으로 퇴화했다. 그 속에는 악마 · 용 · 악귀가 들끓었고, 이것은 모두 깨우침을 받지 못한 필사 지성에게 두려움이 돌아오는 것을 가리킨다. 진보된 종교 때문에 한때 인간 사회의 선두에 있던 중국은, 다음에 **하나님** 의식을 개발하는 참된 길에서 잠시 진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뒤로 처졌다. 이 **하나님** 의식(意識)은 개별 필사자의 경우만 아니라, 시공의 진화 행성에서 문화와 사회의 진보의 특징을 나타내는, 복잡하고 복합된 문명이 참으로 진보하는 데 필수이다.

7. 고타마 싯달타

94:7.1 (1035.1) 중국에서 노자와 공자와 같은 시대에, 진실을 가르친 또 하나의 위대한 선생이 인도에서 나타났다. **고타마 싯달타**는 인도 북부 지방 **네팔**에서 **그리스도** 이전 6세기에 태어났다. 그의 추종자들은 나중에 그가 환상처럼 부유한 통치자의 아들인 것으로 보이게 만들었다. 그러나 진실로, 그는 남쪽 **히말라야**의 작은 외딴 산 계곡에서 주위가 묵인하여 다스린, 어느 조그만 족장의 옥좌를 분명히 이어받을 후계자였다.

94:7.2 (1035.2) **고타마**는 요가를 쓸데없이 6년 동안 연습한 뒤에, 불교의 철학으로 발전된 어떤 이론을 만들어냈다. **싯달타**는 성장하는 카스트 제도에 맞서서, 굳게 각오했지만 보람없는 싸움을 벌였다. 이 젊은 선지자인 왕자에게는 그 시절에 사람들의 마음을 크게 끈, 대단히 성실하고 독특하게 사심 없는 태도가 있었다. 그는 육체를 학대하고 몸에 고통을 줌으로 개인의 구원을 얻으려 애쓰는 풍습이 가치가 없다고 비방하였다. 그리고 추종자들에게 그의 복음을 온 세계에 가져가라고 훈계하였다.

94:7.3 (1035.3) 인도에서 혼란과 극단적 종파의 풍습이 넘치는 가운데서, **고타마**의 온건하고 절제 있는 가르침은 가뭄에 시원한 비처럼 들렸다. 그는 신과 사제들, 그리고 그들에게 희생물 바치는 것을 비난했지만, 그도 마찬가지로 **우주의 하나**가 성격인 것을 깨닫지 못했다. 개별 인간의 혼이 존재하는 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고타마**는 물론, 혼이 윤회한다는 오래 지녀온 관념에 맞서 용감하게 싸움을 벌였다. 그는 사람들을 두려움에서 구원하고, 큰 우주에서 사람들을 안락하고 편안한 느낌을 가지게 하려고 고귀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하늘 가는 필사자의 진정한 하늘 집 — **파라다이스** — 로 그리고 영원히 존재하여 더욱 봉사하는 길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못했다.

94:7.4 (1035.4) **고타마**는 진정한 선지자였다. 은둔자 **고닷**의 훈계에 귀를 기울였더라면, 그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살렘** 복음을 부활시키는 영감으로 온 인도를 일깨웠을지 모른다. **고닷**은 **멜기세덱** 선교사들의 전통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은 어느 가족을 통해서 내려왔다.

94:7.5 (1035.5) **베나레스**에서 **고타마**는 학교를 세웠는데, 둘째 해에 한 생도 **바우탄**은 **멜기세덱**이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에 관한 **살렘** 선교사들의 전통을 선생에게 전파했다. **우주의 아버지**에 대하여 아주 뚜렷한 개념을 가지지 못 했어도, **싯달타**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 — 간단한 믿음 — 에 대하여 진보된 자세를 가졌다. 추종자들 앞에서 그 자신 그렇게 선언했으며, “거저 구원을 주는 반가운 소식, 높은 자와 낮은 자, 모두가 올바른과 응보를 믿음으로 지극한 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인도 사람들에게 선포하라고 학생들을 60명씩 떼를 지어 보내기 시작했다.

94:7.6 (1035.6) **고타마**의 아내는 남편의 복음을 믿었고 여승 계급의 창시자가 되었다. 그의 아들은 후계자가 되어 종파의 세를 크게 떨쳤다. **고타마**는 믿음을 통해 구원을 얻는다는 새로운 관념을 파악했지만, 나이 들었을 때, 믿음만으로 신의 은총을 얻는 **살렘**의 복음에 주춤하였고, 만년에 죽으면서 말했다. “너 자신의 구원을 해결하라.”

94:7.7 (1036.1) 선포된 중에 최선을 보면 희생물 · 자학(自虐) · 의식(儀式) · 사제에 매이지 않고 보편적으로 구원 받는다는 **고타마**의 복음은 그 시대에 혁명이요 놀라운 교리였다. 그것은 놀랍게도 **살렘** 복음의 부흥과 같았다. 그 복음은 수백만의 절망하는 혼들에게 구원을

주었고, 그 뒤에 여러 세기 동안 괴상하게 일그러졌는데도, 수많은 인간의 희망으로서 아직도 지속한다.

94:7.8 (1036.2) **싯달타**는 그의 이름을 지닌 현대 종파들에서 살아남은 것보다 훨씬 많은 진실을 가르쳤다. 기독교가 **나사렛 예수**의 가르침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현대 불교는 **고타마 싯달타**의 가르침과 거리가 멀다.

8. 불교도의 신앙

94:8.1 (1036.3) 불교도가 되기 위해서 사람은 “나는 부처님께 피신한다. 교리 속에 피신한다. 단체에 피신한다”하고 도피문을 외워서 신앙을 대중 앞에서 고백하기만 했다.

94:8.2 (1036.4) 불교는 신화에 기원을 가진 것이 아니라 역사적 인물에서 기원을 가졌다. **고타마**를 따르는 자들은 주, 또는 선생이라는 뜻으로 그를 **사스타**라고 불렀다. 자신이나 그의 가르침이 인간을 초월한다는 주장을 전혀 내세우지 않았지만, 제자들은 일찍부터 그를 깨우친 자, 부처, 나중에는 석가모니 부처라고 불렀다.

94:8.3 (1036.5) **고타마**의 최초 복음은 다음의 네 가지 고귀한 진리에 바탕을 두었다:

94:8.4 (1036.6) 1. 인간이 고통 받는다는 고귀한 진리.

94:8.5 (1036.7) 2. 고통의 기원.

94:8.6 (1036.8) 3. 고통의 소멸.

94:8.7 (1036.9) 4. 고통의 소멸에 이르는 길.

94:8.8 (1036.10) 고통의 교리와 고통에서 벗어남과 가까이 연결된 것은 팔도(八道)의 철학이었고, 이는 바른 견해, 바른 포부,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 바른 노력, 바른 생각, 바른 숙고이다.^[109] 고통에서도 피함으로 모든 노력 · 욕구 · 애정을 없애는 것이 **고타마**의 의도는 아니었다. 오히려 그의 가르침은 모든 희망과 포부를 전적으로 현세의 목표와 물질 대상에 거는 것이 헛됨을 필사 인간에게 보이려고 고안되었다. 사람이 동료 사랑하기를 피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참 신자는 또한 이 물질 세계의 관계를 넘어서, 영원한 앞날의 실체들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94:8.9 (1036.11) **고타마**가 전파한 도덕 계율은 다섯 가지였다:

- 94:8.10 (1036.12) 1. 죽이지 말라.
- 94:8.11 (1036.13) 2. 흠치지 말라.
- 94:8.12 (1036.14) 3. 정절(貞節)을 버리지 말라.
- 94:8.13 (1036.15) 4. 거짓말하지 말라.
- 94:8.14 (1036.16) 5. 독한 술을 마시지 말라.

94:8.15 (1036.17) 추가 계율, 곧 버금가는 계율이 몇 있었고, 이를 지키는 것은 신자들의 재량이었다.

94:8.16 (1036.18) **싯달타**는 도저히 인격이 불멸함을 믿었다고 할 수 없다. 그의 철학은 겨우 일종의 기능 연속성을 생각해 놓았다. 그는 열반이라는 교리 속에 무엇을 담으려 뜻했는지 결코 뚜렷이 정의를 내리지 않았다. 필사자로 존재하는 동안에 이론적으로 체험할 수 있다는 사실은 열반을 사람이 완전히 소멸된 상태로 보지 않았음을 가리킬 것이다. 열반은 사람을 물질 세계에 묶어 두는 모든 사슬이 깨뜨려진, 최고의 깨우침이요 하늘 같이 복된 상태를 가리켰다. 필사

인생의 욕구에 매이지 않고 언제라도 다시 육신이 되는 모든 위험에서 벗어나는 것이었다.

94:8.17 (1037.1) **고타마**의 최초의 가르침에 따르면, 신의 도움은 별도로 하고, 구원은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진다. 사람을 구원하는 믿음이나 초인간 권력자들에게 드리는 기도가 있을 자리가 없다. 인도의 미신을 최소로 줄이려는 시도로, **고타마**는 마술로 사람을 구원한다고 외치는 뻔뻔한 주장으로부터 사람들을 돌이키려고 노력했다. 그리고 이런 노력을 기울이면서, 후계자들이 그의 가르침을 잘못 풀이하고, 무언가 달성하려 하는 인간의 모든 노력이 싫고 고통스러운 것이라 외치도록 문을 활짝 열어 놓았다. 최고의 행복은 바람직한 목표를 총명하게 열심히 추구하는 것과 연결되고, 그러한 성취는 우주에서 자아를 실현하면서 참으로 진보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추종자들은 간과하였다.

94:8.18 (1037.2) **싯달타**의 가르침에 있는 큰 진실은 우주에 절대적 응보가 있음을 선포한 것이었다. 그는 필사 인간이 일찍이 발명한 가운데, 신이 없이 최선의 철학을 가르쳤다. 그 철학은 이상적 인본주의였고, 미신과 마술 의식(儀式), 귀신이나 악귀 공포증이 생길 근거를 아주 실질적으로 없애 버렸다.

94:8.19 (1037.3) 불교에서 최초의 복음에 있는 큰 약점은 그 복음이 사심 없이 사회에 봉사하는 종교를 낳지 않은 것이다. 불교 단체는 오랫동안, 신자들의 우애 단체가 아니라, 오히려 조교(助敎)들의 공동체였다. **고타마**는 그들이 돈 받는 것을 금했고, 이렇게 함으로 계층 조직의 성향이 자라는 것을 막으려고 애썼다. **고타마** 자신은 상당히 사교적이었다. 참말로 그의 일생은 그의 설교보다 훨씬 위대했다.

9. 불교의 전파

94:9.1 (1037.4) 불교가 부처, 곧 깨우친 자를 믿음으로 구원 얻기를 권했기 때문에 불교는 번성했다. 불교는 동 **아시아**에 두루 발견되는 어느 다른 종교 체계보다 **멜기세덱**의 진리를 더 많이 대표하였다. 그러나 낮은 카스트의 군주였던 **아소카**가 자신을 보호하는 노력으로 불교를 지지할 때까지, 불교는 한 종교로서 널리 퍼지지 않았다. **아소카**는 **에집트**의 **이크나톤** 다음으로, **멜기세덱**과 **미가엘** 사이에 가장 눈에 띄는 국가 통치자 중에 하나였다. **아소카**는 불교 선교사들의 선전을 통해서 큰 인도 제국을 세웠다. 25년의 기간에 그는 1만 7천 명이 넘는 선교사를 훈련시키고, 이들을 알려진 온 세계의 가장 먼 미개척지까지 보냈다. 한 세대 안에 그는 세계의 절반에서 불교가 지배적 종교가 되게 만들었다. 불교는 **티벳** · **카슈미르** · **세일론**, **버마** · **자바** · **시암** · **고려**^[110] · **중국** · **일본**에서 곧 자리가 잡혔다. 크게 보아서, 불교는 불교가 갈아치우거나 개량한 것들보다 훨씬 뛰어난 종교였다.

94:9.2 (1037.5) 불교가 인도의 고향에서 **아시아** 전체로 전파된 것은 성실한 종교가들이 영적으로 헌신하고 끈질기게 선교한 흥미 있는 이야기 중의 하나이다. **고타마**의 복음을 전하는 선생들은 육로로 카라반 길의 위험을 무릅썼을 뿐 아니라, **아시아** 대륙을 지나서 사명을 추구하는 동안에 중국해의 위험에 부딪쳤고, 그들의 신앙이 전하는 소식을 모든 민족에게 가져다주었다. 그러나 이 불교는 이제 더 **고타마**의 단순한 교리가 아니었다. 그를 신으로 만든, 기적이 된 복음이었다. 그리고 인도에서 그 고지(高地)의 고향으로부터 불교가

멀리멀리 퍼짐에 따라서, 불교는 **고타마**의 가르침과 더욱 달라졌고, 불교가 갈아치운 종교들과 더욱 비슷해졌다.

94:9.3 (1038.1) 불교는 나중에 중국에서 도교에, 일본에서는 신도에, **티벳**에서는 기독교에 많이 영향을 받았다. 1천 년이 지난 뒤에, 불교는 인도에서 단지 시들고 사라졌다. 불교는 **브라만**화되고 나중에는 비굴하게 **이슬람**에게 항복했으며, 한편 나머지 동양의 상당 부분에서 **고타마 싯달타**가 결코 알아보지 못했을 의식(儀式)으로 퇴화되었다.

94:9.4 (1038.2) 남쪽에서 **싯달타**의 가르침에서 근본주의자의 전형(典型)은 **세일론**, **버마**, **인도차이나** 반도에서 지속하였다. 이것은 초기의 교리, 즉 반사회적 교리를 고수하는 불교의 **히나야나** 종파이다.

94:9.5 (1038.3) 그러나 미처 인도에서 붕괴하기 전에, **고타마** 추종자의 중국 집단과 북부 인도 집단은, **히나야나**, 즉 “소승(小乘)”을 고수한 남쪽의 순수파들과 대조해서, 구원에 이르는 “대승(大乘)” **마하야나** 가르침을 비로소 개발하였다. 이 대승 불교 신자들은 불교 교리에 본래부터 있던 사회적 제한에서 풀려났고, 그 뒤로 늘, 불교의 이 북쪽 가지는 중국과 일본에서 계속 진화하였다.

94:9.6 (1038.4) 불교가 오늘날 생생하고 성장하는 종교가 된 것은 불교가 그 신도들의 가장 높은 도덕적 가치를 많이 보존하는 데 성공하기 때문이다. 불교는 차분함과 자제를 권장하고, 마음의 침착과 행복을 키우고, 슬픔과 애통을 막는 데 크게 이바지한다. 이 철학을 믿는 자는 그렇지 않은 많은 사람보다 더 낮게 인생을 산다.

10. 티벳에 있던 종교

94:10.1 (1038.5) **티벳**에는 불교 · **힌두교** · 도교 · 기독교와 통합되어 **멜기세덱**의 가르침이 가장 이상하게 관련된 것을 찾아볼 수 있다. 불교 선교사들이 **티벳**으로 들어갔을 때, 그들은 초기 기독교 선교사들이 **유럽**의 북쪽 부족들 사이에서 발견한 것과 아주 비슷한 원시의 야만 상태와 마주쳤다.

94:10.2 (1038.6) 이 순진한 **티벳** 사람들은 오래된 마술과 부적을 전부 버리려 하지 않았다. 오늘날 **티벳** 의식에 있는 종교 예식을 검토해 보면, 머리를 민 사제의 단체가 지나치게 성장한 것을 드러내며, 이들은 종(鐘) · 노래 · 향(香), 행렬 · 목주 · 형상, 부적 · 그림, 거룩한 물, 화려한 의상, 그리고 정성 들인 성가대를 포함하는 정교한 의식을 거행한다. 그들은 굳어진 교리와 경직된 신조, 신비스러운 의식과 특별한 금식이 있다. 그들의 계층은 중 · 여승 · 주지(住持)들과 큰 **라마**를 포함한다. 그들은 천사와 성자들, **거룩한 어머니**와 신들에게 기도한다. 그들은 죄를 고백하고, 연옥을 믿는다. 절은 광대하고 사원(寺院)은 웅장하다. 그들은 성스러운 의식을 끊임없이 되풀이하고, 그러한 예식이 구원을 준다고 믿는다. 기도문을 바퀴에 붙이고, 바퀴가 돌면 그 간구가 효력이 있다고 믿는다. 현대에 어느 다른 민족에서도 그렇게 많은 종교에서 온 그렇게 많은 것을 준수하는 것을 찾아볼 수 없다. 그러한 누적된 의식(儀式) 문집은 터무니없이 성가시고 못 견딜 짐이 될 것은 불가피하다.

94:10.3 (1038.7) **티벳**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사람끼리 형제인 것, 그리고 영원한 우주에서 늘 올라가는 시민이라는 **예수** 복음의 간단한 가르침을 제외하고, 모든 주요한 세계 종교로부터 무엇인가를 얻어 왔다.

11. 불교도의 철학

94:11.1 (1038.8) 불교는 그리스도 이후 첫째 천년에 중국으로 들어갔고, 황인종의 종교 관습에 잘 들어맞았다. 조상을 숭배하면서 그들은 죽은 자에게 오랫동안 빌었다. 이제 그들은 또한 죽은 자를 위해서도 빌 수 있었다. 불교는 사그라지는 도교에서 남은 의식 풍습과 곧 섞였다. 예배를 드리는 사원(寺院)과 분명한 종교 의식과 더불어, 새로 합성된 이 종교는 곧 중국 · 고려 · 일본의 민족들이 널리 받아들인 종파가 되었다.

94:11.2 (1039.1) 고타마의 추종자들이 그 종파의 전통과 가르침을 너무 왜곡하여 그를 신성한 존재로 만들 때까지 불교가 세상에 전해지지 않은 것은, 어떤 면에서 불행한 일이었다. 그런데도 그의 인생에 관한 이 신화는, 수많은 기적으로 실제로 치장된 바와 같이, 불교의 북부 북음, 곧 **마하야나** 북음을 듣는 자들에게 무척 호소력이 있다는 것이 판명되었다.

94:11.3 (1039.2) 나중에 그의 추종자들 가운데 더러는 석가모니 부처의 영이 살아 있는 부처로서 땅에 정기적으로 돌아온다고 가르쳤고, 이렇게 부처의 형상 · 절 · 의식(儀式), 그리고 사기꾼인 “살아 있는 부처들”이 무기한으로 영속하는 길을 열어놓았다. 이처럼 위대한 인도인의 신교(新敎)는 궁극에, 그가 아주 두려움 없이 대항하고 그토록 용감히 비난했던 바로 그 예식 풍습에, 그리고 의식용 주문에, 그 자체가 묶여 있음을 발견했다.

94:11.4 (1039.3) 불교도의 철학에서 큰 발전은 모든 진리의 상대성을 이해했다는 데 있다. 이 가설의 작용을 통해서, 불교도는 자신과 다른 여러 사람 사이의 차이만 아니라, 자기네 종교 경전(經典)들의 상이점을 절충하고 상관시킬 수 있었다. 작은 진리는 작은 지성을 위하여, 큰 진리는 큰 지성을 위한 것이라고 가르쳤다.

94:11.5 (1039.4) 이 철학은 또한 부처의 (신다운) 성품이 모든 사람 안에 거한다고, 사람은 스스로 노력해서 이 속 사람의 신성을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 가르침은 **유란시아**의 종교가 사람에게 깃드는 **조절자**의 진실을 가장 뚜렷하게 발표한 것 중에 하나이다.

94:11.6 (1039.5) 그러나 **싯달타**의 최초의 복음에 있는 큰 제한은, 추종자들이 풀이한 바와 같이, 자아를 객관적 실체로부터 고립시키는 방법으로 필사 성품의 모든 한계로부터 인간의 자아를 완전히 해방시키려 했다는 것이다. 우주에서 자아의 참된 실현은 우주의 실체, 그리고 공간에 제한 받고 시간에 제약 되는 에너지 · 지성 · 영으로 이루어진 유한한 우주와 일체가 되는 결과로서 생긴다.

94:11.7 (1039.6) 그러나 불교의 예식과 겉으로 나타나는 행사가 불교가 여행한 여러 나라에 있는 예식과 행사에 엄청나게 오염되었어도, 때때로 이 체계의 사상과 관념을 받아들인 위대한 사상가들의 철학적 생활에 이런 퇴화가 있었다고 잘라 말할 수는 없다. 2천 년이 넘도록, **아시아**의 많은 최고 지성인은 절대 진리와 **절대자**에 관한 진실을 확인하는 문제에 힘을 기울였다.

94:11.8 (1039.7) **절대자**에 대한 높은 개념의 진화는 많은 생각 경로를 통해서, 빛나간 논리의 길을 거쳐서 이루어졌다. 이 무한의 교리가 위로 올라간 길은 **히브리** 신학에서 **하나님** 개념이 진화한 것만큼 뚜렷이 정의되지는 않았다. 그런데도 우주들의 시초 근원을 상상하는

도중에, 불교도의 지성이 다다르고, 머무르고, 거쳐 간 어떤 일반 수준이 있었다.

94:11.9 (1039.8) 1. 고타마의 전설. 개념의 근저에는 인도의 선지자였던 왕자, **싯달타**의 일생과 가르침, 즉 역사적 사실이 있었다. **고타마**를 깨우친 자라는 관념의 상태를 넘어서 추가된 속성을 비로소 얻을 때까지, 이 전설은 여러 세기를 통해서, **아시아**의 넓은 땅을 통과하며 여행하는 동안, 신화 속에서 자랐다.

94:11.10 (1040.1) 2. 여러 부처. **고타마**가 인도의 민족들에게 왔다면, 다음에 아득히 먼 과거에 인류의 종족들은 다른 진실 선생이 오시는 축복을 받았고, 아득히 먼 앞날에 의심할 여지없이 또 축복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추리하였다. 이것은 부처가 많이, 제한 없이 무한히 있다, 아니 누구나 부처가 되기를 — 부처의 신성을 얻기를 — 바랄 수 있다고 하는 가르침도 낳았다.

94:11.11 (1040.2) 3. 절대 부처. 부처들의 수가 무한에 가까이 이를 때가 되자, 다루기 힘든 이 개념을 그 시절의 지성인이 다시 통일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모든 부처가 단지 어떤 더 높은 본질, 무한하고 조건 없이 존재하는 어떤 **영원한 하나**, 모든 실체의 어떤 절대 근원이 겉으로 나타난 것이라는 가르침이 시작되었다. 여기서부터 계속, 불교에서 신 개념은, 최선의 형태로 보아서, **고타마 싯달타**의 인간 몸을 벗어나고, 그 개념을 끈으로 묶어 두었던, 사람 모습의 제한을 벗어 버렸다. 이 최종 개념, 영원한 부처는 **절대자**, 때로는 무한한 **스스로 계신 이**와도 쉽게 동일시될 수 있다.

94:11.12 (1040.3) 이 절대 신 관념은 결코 **아시아** 민족들 사이에 크게 유행하지 않았지만, 이것은 이 땅의 지식인들로 하여금 그들의 철학을

통일하고 우주론을 조화시키도록 만들었다. 절대 부처 개념은 때때로 준(準)성격을 가졌고, 때때로 온전히 비성격이었다 — 아니 무한한 창조 세력이기도 했다. 그러한 개념은 철학에 도움이 되어도, 종교의 발전을 좌우하지 않는다. 사람 모습을 한 **야웨**조차도, 무한히 멀리 있는, 불교나 **브라만교**의 **절대자**보다 더 큰 종교적 가치가 있다.

94:11.13 (1040.4) 때때로 **절대자**는 무한한 스스로 **계신 이** 안에 담겨 있다고도 생각되었다. 그러나 이 추측은 약속의 말씀,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이 신의 은총을 얻고 영원히 살아남는 것을 보장하리라는 **살렘**의 단순한 복음을 무척 듣고 싶어 했던 갈급한 대중에게 찬물을 끼얹어 위로하는 것이었다.

12. 불교에 있는 하나님 개념

94:12.1 (1040.5) 불교의 우주론에서 큰 약점은 두 가지였다. 하나는 인도와 중국의 많은 미신에 불교가 오염된 것이요, 다른 하나는 처음에는 **고타마**를 깨우친 자로서, 나중에는 영원한 부처로서 높인 것이다. 기독교가 많은 잘못된 인간 철학을 흡수하여 고생한 것처럼, 불교도 인간적 출생 표시를 지닌다. 그러나 **고타마**의 가르침은 지난 2천5백 년 동안 줄곧 진화해 왔다. 깨우침을 받은 기독교인에게 **여호와** 개념이 **호렙** 산의 악령과 동일하지 않은 것 같이, 깨우침을 받은 불교도에게 부처 개념은 이제 더 **고타마**의 인격이 아니다. 용어의 부족은, 옛날의 명칭을 감상적으로 보유하는 것과 함께, 흔히 종교 개념에 있었던 진화의 참된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하게 유도한다.

94:12.2 (1040.6)

절대자와 대조되는 하나님 개념은 불교에서 차츰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 근원은 소승과 대승의 추종자들을 이처럼 구별하던 옛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후자의 불교 종파 사이에서 **하나님**과 **절대자**의 두 가지 개념이 마침내 무르익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세기 한 세기, 일본에서 **료닌**(良忍)^[111], **호넨 쇼닌**(法然上人)^[112], **신란**(親鸞)의^[113] 가르침과 함께, **하나님** 개념이 진화하였고, 마침내 이 개념은 **아미다** 부처 관념에서 열매를 맺었다.

94:12.3 (1041.1)

이 신자들 사이에서, 죽음을 겪고 나서 혼은 궁극의 존재, 열반(涅槃)에 들어가기 전에, **파라다이스**에서^[114] 체류하기를 선택할 수 있다고 가르쳤다. 서쪽에 있는 **파라다이스의 하나님**, **아미다**의 신다운 자비와 사랑으로 돌보심을 믿음으로 이 새로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선포되었다. **아미다** 신자들의 철학은, 유한한 필사자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무한한 실체**를 고수한다. 그들은 그 종교에서 온통 자비로운 **아미다**를 믿는 신앙에 매달리며, 그 **아미다**는 세상을 무척 사랑해서, 참으로 믿으면서 깨끗한 마음으로 그의 이름을 부르는 필사자 한 명도 **파라다이스**의 하늘 같은 행복에 이르지 못하는 것을 참지 못한다.

94:12.4 (1041.2)

불교의 큰 장점은 그 신봉자들이 모든 종교로부터 마음대로 진실을 고르는 것이다. 그러한 선택의 자유는 어느 **유란시아** 종교의 특징이 된 적이 드물다. 이 점에서 일본의 정토진종(淨土眞宗) 교파는 세계에서 가장 진취적 종교 집단의 하나가 되었다. 이 교파는 **고타마** 추종자들의 옛 선교 정신을 부활시켰고, 다른 민족들에게 선생들을 보내기 시작했다. 어떤 근원에서도, 아니 온갖 근원에서 이렇게 진실을 기꺼이 취하려 하는 자세는 **그리스도** 이후 20세기 전반(前半)에 종교 신자들 사이에서 나타난, 정말로 칭찬 받을 경향이다.

94:12.5 (1041.3) 불교 그 자체는 20세기의 부흥을 겪고 있다. 기독교와 접촉을 가짐으로 불교의 사회적 모습은 크게 향상되었다. 배우려는 욕구가 그 단체의 승려들 마음 속에서 다시 불이 붙었고, 이 신앙에 두루, 교육의 확산은 종교의 진화에서 새로운 걸음을 분명히 자극할 것이다.

94:12.6 (1041.4) 이 글을 쓸 때, **아시아**의 상당 부분은 불교에 희망을 걸고 있다. 인도에서 그 위대한 선생의 제자들이 한때 그가 새 진실을 선포함을 들은 것과 같이, 지난날의 암흑 시대를 통해서 아주 용감히 버티어 온 이 고귀한 신앙은 확대된 우주 실체들에 관한 진실을 다시 한 번 받아들일 것인가? 그렇게 오랫동안 찾던, **하나님과 절대자**에 대한 새로운 개념의 발표가 활력을 주며 자극하는 데 이 옛 신앙이 다시 한 번 꿈틀할 것인가?

94:12.7 (1041.5) 진화적 기원을 가진 여러 종교와 접촉함으로 19세기 동안에 축적된 교리와 독단에 방해 받지 않은 말씀, 사람을 고귀하게 만드는 **미가엘**의 말씀이 선포되기를 온 **유란시아**가 기다리고 있다. 불교 · 기독교 · **힌두교**에, 아니 온갖 신앙을 가진 민족들에게도, **예수**에 관한 복음이 아니라, **예수**의 복음의 생생한 영적 실체를 발표한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94:12.8 (1041.6) **[네바돈의 한 멜기세덱이 발표했다.]**

[104]: ^{94:1.3} Dyaus pitar는 제우스 아버지 또는 주피터[Jupiter]의 산스크리트 발음이라 함.

[105]: ^{94:1.4} 다신교에서 일신교로 넘어가는 과정에 여러 신을 인정하지만 자기네 신이 최고의 신이라는 믿음. 보통 사전에 henotheism을 단일신교라 하지만 일신교와 구별이 되지 않아 정확한 뜻을 전하지 못한다.

[106]: ^{94:5.1} 수이푸(See Fuch, Suifu)는 오늘날, 중국의 이빈(宜賓) 시.

[107]: ^{94:6.3} 노자, 42장 道化에서 “道生一, 一生二, 二生三, 三生萬物”을 풀이한 것.

[108]: ^{94:6.9} 이 글이 1935년에 기록되었으므로 여기서 일본은 한국 지역을 포함한다.

[109]: ^{94:8.8} 불교에서 正見・正定・正言・正業・正命・正精進・正念・正思惟의 八正道.

[110]: ^{94:9.1} 지금의 한반도, 곧 고려를 말한다.

[111]: ^{94:12.2} 헤이안(平安) 시대 후기의 천태종의 승려(1073 - 1132).

[112]: ^{94:12.2} 일본 정토종(淨土宗)의 창시자(1133-1212).

[113]: ^{94:12.2} 일본에서 가마꾸라 시대에 살았던 승려(1173-1263).

[114]: ^{94:12.3} 또는 극락.
